

- **주요 뉴스:** 미국 주택시장 지표, 경기침체 우려 심화 과도한 금리인하 기대 정계감도 확산
 - ECB 부총재, 물가상승 억제에 0.50%p 수준의 금리인상을 지속할 필요
 - EU 에너지장관 회의, 천연가스 가격 상한제 합의. 이전보다 상한 가격을 하향
 - 일본 정부, 일본은행과의 정책 협력 재검토할 가능성. 통화정책 변경 전망 증가
- **국제금융시장:** 미국은 통화긴축과 그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약화
주가 하락[-0.9%], 달러화 약보합-0.02%, 금리 상승[+10bp]
 - **주가:** 미국 S&P500지수는 경기 불확실성 등으로 4거래일 연속 하락
 유로 Stoxx600지수는 중국 경기회복 기대로 인한 에너지 관련주 강세 등으로 0.3% 상승
 - **환율:** 달러화지수는 주요국 통화정책에 대한 엇갈린 전망 등이 배경
 유로화가치는 0.2% 상승. 엔화는 0.3% 절하
 - **금리:**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연준의 금리인상 장기화 가능성 등이 반영
 독일은 ECB 인사들의 매파적 발언 등으로 5bp 상승

※ 원/달러 1M NDF환율(1300.9원, -1.1원) 0.1% 하락, 한국 CDS 보합

		12/19일	12/16일	전일대비			12/19일	12/16일	전일대비
주가	미국	3,817.7	3,852.4	-0.90%	국채 금리 10y	미국	3.58%	3.48%	10bp
	유럽	425.87	424.74	0.27%		독일	2.20%	2.15%	5bp
	중국	3,107.1	3,167.9	-1.92%		영국	3.50%	3.33%	17bp
	일본	27,238	27,527	-1.05%		CDS 5y	한국	56bp	56bp
	한국	2,352.2	2,360.0	-0.33%	위험 지표	중국	77bp	76bp	1bp
	달러지수	104.68	104.70	-0.02%		EMBI+	-	384	-
환율	유로화	1.0607	1.0586	0.20%		VIX	22.42	22.62	-0.88%
	엔화	136.94	136.60	-0.25%		WTI유	75.19	74.29	1.21%
	위안화	6.9797	6.9740	-0.08%	원자재	구리	375.7	376.2	-0.13%
	원화	1,302.9	1,305.4	0.19%		금	1,787.4	1,793.1	-0.32%

주: 주가는 미국 S&P 500, 유럽 Stoxx 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.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금일의 포커스

■ 미국 주택시장 지표, 경기침체 우려 심화. 과도한 금리인하 기대 경계감도 확산

- 12월 NAHB 주택시장지수는 31을 기록하여 전월(33) 및 예상치(34) 하회. 이는 12개월 연속 하락으로 코로나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면 '12년 6월 이후 최저 수준. 건설업체들은 구매자들에게 가격 할인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나 모기지 금리의 큰 폭 상승, 건설비 증가 등으로 수요가 부진
- 다만 일부에서는 12월의 하락폭이 최근 6개월 중에서 가장 작고, 최근 모기지 금리도 하락하고 있는데 이는 해당 지수의 저점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(NAHB의 Robert Dietz)
- Black Rock은 연간 물가상승률이 내년 3.5%까지 내려가고 최종금리는 내년 상반기 5.0%에서 정점에 이를 것으로 관측(Scott Thiel). 그러나 인구구조의 변화, 지정학적 갈등 등 구조적 요인에 따른 고물가 요인이 장기간 지속될 수 있어 정책금리의 무조건적인 인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
- Morgan Stanley 역시 내년 미국 기업이익이 금융위기 기간에 비견될 정도로 부진할 것으로 전망(Michael Wilson). 성장둔화 등으로 내년 S&P500 기업의 주당이익은 180달러를 나타내고 S&P500 지수의 경우 최근 수준보다 20% 낮은 3000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
- 윌리엄 더들리 전 뉴욕 연은 총재도 금융시장에 관한 긍정적 평가가 늘어날수록 연준이 더 강한 통화긴축에 나설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고 발언

글로벌 동향 및 이슈

■ ECB 부총재, 물가상승 억제를 위해 0.50%p 수준의 금리인상을 지속할 필요

- 데 쿼도스 부총재는 전례없는 수준의 높은 물가상승률이 2%라는 목표치 도달을 예상할 수 있을 때까지 금리인상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. 또한 일시적인 경제 냉각이 물가 상승세를 막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부연
- 독일 중앙은행 나겔 총재는 ECB의 금리인상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2년 정도 소요될 수 있어 인내가 필요하다고 언급. 슬로바키아 중앙은행의 카지미르 총재는 ECB가 제약적 수준의 금리를 상당 기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

■ 독일 12월 Ifo 기업업황지수, 예상치 상회. 에너지 가격 하락 등이 반영

- 12월 Ifo 기업업황지수는 88.6을 나타내 전월(86.4) 및 예상치(87.4) 대비 높은 수준. 연말 연휴 시즌이 다가오면서 기대감이 확대. 특히 최근 에너지 공급 부족에 따른 경기하강 저점을 통과하고 있다는 신호가 증가

■ EU 에너지장관 회의, 천연가스 가격 상한제 합의. 이전보다 상한 가격을 하향

- 이번에 합의한 천연가스 가격의 상한선은 네덜란드 TTF 가스 선물 기준 메가와트시(MWh)당 180유로이며, '23년 2/15일부터 시행할 방침. 이는 지난 번 합의한 가격(MWh당 275유로)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. 최근 네덜란드 TTF 가스 선물 가격은 MWh당 109유로에서 거래

■ 중국 12월 World Economics 기업신뢰, 10년 만에 최저. 코로나 19 등이 영향

- 12월 World Economics 기업신뢰지수는 48.1을 기록하여 11월(51.8) 대비 하락. 이번 결과는 중국 경제성장이 급격하게 둔화되고 있음을 보여주었으며, 내년에도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
- 한편 미국 국무부는 중국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이번 코로나 19 사태를 잘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

■ 일본 정부, 일본은행과의 정책 협력 재검토할 가능성. 통화정책 변경 전망 증가

- 기시다 정부의 관계자들에 따르면, 정부가 일본은행과 '13년 이후 지속하고 있는 정책 협력을 내년에 수정할 수 있다고 언급. 만일 이러한 발언이 현실화된다면 그 시기는 일본은행 구로다 총재가 물러나는 4월이 될 가능성
- 야마구치 전 일본은행 부총재는 일본은행이 금리인상 등 좀 더 유연한 통화정책 시행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. 한편 로이터 조사에 따르면, 설문에 응한 이코노미스트의 절반 정도가 내년 일본은행이 초완화 정책을 중단할 것으로 예상

주요 경제지표

■ 주요 경제 이벤트(12/20 현지시각 기준)

- 일본은행 통화정책회의, 중국 인민은행 대출우대금리(LPR) 결정
- 미국 11월 주택착공 및 건설허가, 유로존 12월 소비자신뢰

해외시각 및 외신평가

■ '23년 연준의 인플레이션 대응, 초점은 임금 - 블룸버그

(Powell puts US pay hikes at heart of Fed's 2023 Inflation fight)

- 연준의 '23년 인플레이션 대응은 임금상승이 주택부문을 제외한 서비스 물가에 미칠 영향, 특히 임금-물가의 악순환 가능성(일각에서는 운송 및 의료서비스가 비주택 서비스 물가의 상승 원인이라는 주장도 제기)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전망
- 명목임금과 달리 실질임금 상승이 미진해 임금-물가 악순환은 사실보다는 공포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되나(1970년대와 같은 임금-물가 악순환 증거는 부재, 뉴욕 연은 윌리엄스 총재) 지속적인 노동력 공급부족(조기은퇴 등으로 노동력 증가율 정체)은 우려되는 상황
- 연준의 경제전망에 따르면, '23년말 실업률은 전년비 0.9%p(실업자 약 100만명 이상 증가) 상승한 4.6%로 예상되나 물가의 목표 수준(2%)으로의 회귀는 '25년으로 전망되고 있어 임금 및 서비스 물가의 하방경직성 지속을 시사

■ 연준의 조기 금리인하 선회 가능성, 높은 물가전망에도 여전히 잠재 - Nikkei

(FRBは 本当に タカ派な のか)

- 연준의 긴축 장기화 기조는 높은 인플레이션이 내년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가정에 근거(12월 FOMC에서 '23년 core PCE 전망은 9월 대비 0.4%p 높아진 3.5%). 그러나 3.5%라는 전망이 타당한 지는 의문이며 일부 경제학자들은 불가하다고 평가
- 3.5%는 비주택 서비스 물가가 내년에도 올해 고점과 비슷한 수준을 지속한다는 의미. 이는 비합리적이며 실업률 전망치 4.6%와도 부합하지 않는 수준(MS의 Ellen Zentner)
- 결국 연준은 시장의 낙관론 확산에 따른 긴축효과 축소를 막기 위해 실제보다 더 매파적인 물가 예상치를 제시했을 수 있으며, 이는 경기침체가 현실화될 경우 금리인하로의 전환 시기가 12월 점도표보다 더 빨라질 수 있음을 의미

■ 미국 연준, 금융불안 확산 방지를 위해 금리인상 중단이 요구 - Financial Times

(The Fed needs to stop raising rates)

- 연준이 금리를 어느 정도 인상해야 하는지는 우선 실질금리 수준과 상승 속도가 성장을 둔화시키면서 인플레이션 목표를 유도했는가에 좌우. 이제 연준은 금리가 중립 수준보다 높으므로, 추가 인상보다는 과도한 유동성이 진정되었는지 검토할 필요
- 금리인상을 중단해야 할 또 다른 이유는 위험수위의 부채. 초저금리 시기 잘못 배분된 대규모 자본이 금리인상으로 채무상환 부담 증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

■ 미국의 실업급여, 경기침체에 따른 가계의 고통을 경감시키기에는 부족 - 블룸버그

(Yet Again, America Isn't Ready for a Recession)

- 다수의 경제학자들은 내년 미국의 경기침체 가능성을 경고. 경기침체에 따른 실업 증가 시 가계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는 실업급여의 역할이 중요. 그러나 21개 주정부는 높은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조정하지 않는 등 미흡한 면이 존재
- 이는 실업급여의 구조적 문제에 기인. 고용주들이 실업급여 비용을 부담해 수혜자 부담자 불일치로 자원 확충이 어려운 편. 또한 경기침체 시 연방정부가 개입하는 경향이 있어 주정부가 실업급여를 개선할 필요성도 부족. 이러한 상황에서는 경기가 연착륙하더라도 가계의 고통이 클 것으로 예상

■ 중국의 코로나 19 감염 급증, 공급망 충격 초래 우려 - Financial Times

(China/Covid-19: spiralling infections will disrupt supply chains)

- 중국 경제는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지난 2년간 제조업 활동이 급감. 그러나 최근 해당 정책의 완화에도 감염자가 크게 늘어 시장 기대에 부합하는 성장이 어려운 상황. 실제로 베이징 내 금융기관 종사자의 절반가량이 코로나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
- 더 큰 문제는 국내의 공장 근로자 중에서 절반이 코로나에 감염될 것으로 예측된다는 사실. 이는 공급망 차질을 심화시킬 가능성. 이와 같은 현상 지속 시 부품 공급에 필요한 시간이 늘어나면서 지난해의 공급망 충격이 재현될 소지

■ 주요국 통화당국, 높은 근원소비자 물가 등으로 금리인상 기조 유지 예측 - Financial Times

(Mounting global price pressures threaten to trigger more rate rises)

■ 미국, 기업 경쟁력 강화 위해 EU의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필요 - Financial Times

(US must follow Europe's lead on global minimum tax — or be left behind)

■ 연준의 재할인창구 이용규모 증가, 은행의 유동성 부족 신호일 가능성 - 블룸버그

(Billions of Dollars in Fed Discount Window Suggests All Is Not Well in Banking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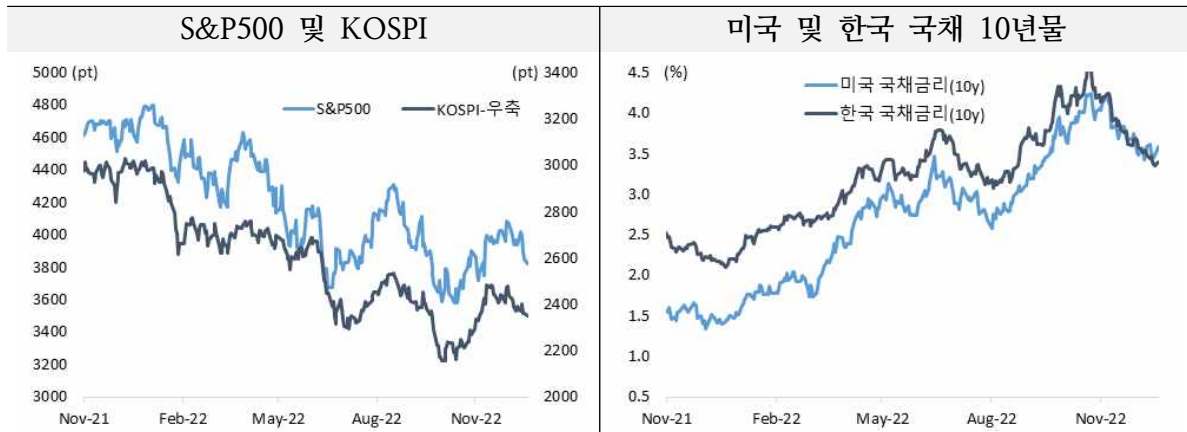
■ 미·중 경제관계, 반도체 제외 전향적으로 변화 - WSJ

(U.S. and China Suddenly Play a Bit Nicer—Except in Chips)

■ 영국 국채금리, 양적긴축과 정부의 발행규모 증가로 크게 상승할 우려 - 블룸버그

(UK Bond Investors Rush to Exit Before Bank of England Debt Sales)

금융시장 주요 지표



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172, E-mail jsjeong@kcif.or.kr